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5주일
제31권 33호(가해) 2011·7·10

[묵상]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달아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씨가 자랄 수 없는 길이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씨앗은 사라져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들밭에서도
환난과 박해를 만나게 되면
기쁘게 받아들였던 말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
예수님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저희는 밭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길이나 들밭, 가시덤불이나 좋은 밭은
처음부터 혹은 영원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그 묵은 밭을 가꾸는 이의 것입니다.
저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그 씨앗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잘 가꾸는 이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그렇지 못하는 이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제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최효선 안젤라, 신대철 알베르토,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연)오진 베드로, 소효군 요셉, 소수연 안나, 박송희, 허용애, 이병호 토마스, 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 엄은섭 도로테오, 민소에 모니카, 여용녀 이숙파 & 정한 스테파노, 박현덕, 이승억 헤로, 김종환 야고보, 김시형 시릴로, 박문영 안젤라,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송학래
낮 미사	(생)조정림 요셉,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신대철 알베르토, 박다빈 이페타, 박세빈 이레네, 김소연 세실리아, 정학순 발파라, 김영길 안드레아, 고정민, 김은영 켈라 가정, 김호인 벨라멧다, 주용순 안나, 김충섭 마틴 & 김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5,10-11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가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쁨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따를 두르나이다.○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18-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3,1-23<또는 13,1-9>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57	193	240
봉헌	368	259	259
성체	284	287	304
파견	211	246	246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존재와 생명을 선물과 의무로 받은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본질적인 의존성을 인정함으로써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충만하게 생활화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모든 문화의 핵심에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신비, 즉 하느님의 신비에 의존하는 태도가 놓여있음"을 보게 된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그분의 계명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역시 결국은 거부당하거나 훼손당하고 만다.

97). 교육활동은 양심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활동은 개인들이 더욱더 인간적이게 도와주며, 그들을 더욱 충만한 진리로 이끌어주며, 그들 안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라나게 하며, 올바른 인격 상호간의 관계를 훈련시켜 준다.

생명이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특히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성과 사랑과 삶 전체를 그 참된 의미와 밀접한 상호 연관성 안에서 받아들이고 체험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인간 생명에 대한 참된 문화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인격 전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성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 가장 심오한 의미를 드러낸다." 성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일은 새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들 중에 포함된다. 참된 사랑만이 생명을 보호할 힘이 있다. 특히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성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그 교육 안에는 정결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결의 덕은 인격의 성숙을 도와주며, 육체적인 "혼인"의 의미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생명에 대한 봉사를 가르치는 활동 속에는 혼인한 부부의 책임있는 출산에 대한 훈련이 포함된다. 책임있는 출산의 참된 의미는 부부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 계획의 성실한 해석자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가정은 새생명에 대해서 관대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심각한 이유들 때문에, 도덕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당분간 또는 막연히 새로운 출산을 피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라도, 부부들은 개방적인 자세와 생명에 봉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도덕률은 부부들 안에 새겨진 생물학적인 법칙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한다. 바로 이렇게 존중할 때, 책임있는 출산을 위해서 출산력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방법들은 더욱 정확해지고 있으며, 도덕률과 조화를 이루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계속)

삶은 영원의 씨앗을 잉태한 텃밭

어느 수녀님 말처럼 “접촉은 줄어들고 접촉만 늘어간다”는 시대, 모니터만 바라보느라 인생의 드라마틱한 세계를 잃어버린 시대에는 영적인 세계마저 접촉이 불가능한 시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연을 편리함의 장애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은 정신마저 혼미해져 순수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만 더 키우는 삶이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리움만 키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접촉 없는 접촉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달력에 새겨진 빨간 날, 휴일만 고대한다면 정작 참된 삶은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 던져진,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의 씨앗을 잉태한 텃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느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는 빼앗기거나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한 채, 숨이 막혀 끝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성소란 어떤 직업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글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마태 5,45) 주시는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씨를 누군가에게는 나쁜 씨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도 그 씨를 받아 가꾸는 이의 정성이

없다면 결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은, 신앙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절대성을 간직하지만 인간의 협조 아래 주어지는 상대성마저 무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해서 신앙은 하느님 사랑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 믿음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이란 떨어지는 씨앗을 피할 수 없고 씨앗을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품고 키우는 선택만은 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인지 양산을 들고 나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고, 삶의 냉혹한 비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할지, 아니면 절망과 포기 of 장벽이 되게 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조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대의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만큼은 박탈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이 좋은 발인지 나쁜 발인지는 그 밭에 열린 결실로 드러나는 것임을 안다면 씨를 탓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탓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 고통 중에도 인내를 품고 절망 속에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상의 끝자락에 천상의 첫 계단이 숨겨져 있음을 안다면, 이런 세상을 설계해 놓으신 하느님의 뜻이 그래서 신비롭고 신비롭습니다. 오늘도 그 신비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마구 뛰어 놀게 합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겐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7월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신·구 구역장 / 반장 합동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0일) 오후 6시
- 장소 : 토요스시
- 그동안 수고해주신 소공동체 임원들과 새로 합류한 분들, 유입된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구 사제연수에 본당 신부님 참석

- 일시 : 7월11일(월)~15일(금), 토런스
- 수요일(13일), 금요일(15일)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목요일(14일) 오후 7시30분 : 부산교구사제 합동미사
- 목요일(14일) 성경통독 오전/오후반 : 휴강
- *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7월20일(수) 오후 7시 30분 저녁미사중
- 대부, 대모님과 함께 참석해주시고.
- 교리시간 임시변경 : 7월13일(수) 오후 7시30분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길' 조성 관련, 재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된 후, 이제 뜻있는 개인 봉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본당 신부님

◆ 어린이 평일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요일미사와 목요일미사(저녁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어린이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424)903-6637, 본당 수녀님

◆ 첫영성체 / 신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6월5일 첫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 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옥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비 : \$25
- 문의 : 성령기도회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 한달간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켈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는 금연합시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특히 꽃밭에 던지지 맙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0일(주일) : P.V. 3/4반(소고기볶음밥 \$3)
- 7월17일(주일) : 토런스 동 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병조 김종렬 방정복 오진희 이귀분 이용무 정지숙 한장환	김관기 김성일 김형순 석순영 우영희 이근모 이은록 조준재 한창주	김광자 김양금 민기남 송종두 유희연 이상석 이태옥 채양식 한혜숙	김기석 김영경 박씨니 양영관 윤화경 이연행 장영우 최금옥 황학수	김기정 김옥보 박인식 오석만 윤희동 이영희 정동호 최태훈 영희가보라	김낙기 김원모 박진수 오일순 이귀란 이우성 정상봉 최희숙 합계 : \$6,445
미사헌금 : \$2,501	2차헌금 : \$783					

성전헌금	구자운 김병조 민기남 양영관 이귀란 이용무 조준재 영희가보라	김관기 김성일 박씨니 오석만 이귀분 이은록 채양식 최태훈	김광자 김양금 박인식 오진희 이근모 이상석 장영우 최태훈	김기석 김옥보 방정복 유희연 이영희 정동호 한장환	김기정 김원모 석순영 윤화경 이영희 정상봉 한창주	김낙기 김형순 송종두 윤희동 이우성 정지숙 한혜숙 합계 : \$4,725
감사헌금 : 오신재						

- ◆ 주일학교 S.O.E.L.밴드 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22일(금) 오후 5시 성당
 - 참석대상 :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분들과 어르신 신자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시시오.
 -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8월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 문의 : 이인석 비오 교장 ☎(213)258-8665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신청마감됐습니다.)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출발 :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남가주 소식

- ◆ 영신수련 8박9일 침묵피정
- 일시 : 8월10(수)~18일(목)
 - 지도 : 정구평 신부(예수회)
 - 장소 : 패사디나 Mother Dolorosa 피정의 집
 - 신청마감 : 7월24일(주일)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전아네스 ☎(213)507-1144
- ◆ 가톨릭 문우회 회원모집
- 대상 : 문학을 사랑하는 교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지도 : 창작교실에서 무료지도를 통해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박시몬 (213)675-2059, 박안젤라 (213)675-2085
- ◆ 고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고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
 - (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별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목)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 반모임(토런스 파크) 7/3(주일) 오후 1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외 반모임 989-0366 7/24(주일) 낮 12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0(주일) 낮12시30분 상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김용 스테파노 320-0855 7/15(금) 오후 7시30분 상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326-6982 7/14(목) 오전 11시 상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오테환 바오로 750-4051 7/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외 반모임(아이스하우스캐년) 7/17(주일) 오전 8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노 953-7903 7/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P.V.구역 합동 반모임 7/9(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합동 반모임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신·구 구역장/반장 합동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회의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2011년 새해에 내가 꼭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은 내가 십자가를 보면 가슴에 성호를 긋고 <감사합니다>라는 순간적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너무 하느님을 괴롭히기만 한 것 같아서 나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웃는 얼굴로 애교를 부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나는 자동차를 타거나 길을 걸을 때 너무 자주 멈추게 되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있어서 하루 기도분량이 많은 만큼 내 행복의 분량도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내 기도는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노릇이지만 눈만 감으면 뭇 좀 해 달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자신의 기도습관이 갑자기 병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말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감사합니다>로 말을 바꾸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 라는 말로 되어버린 것이다. 내 기도는 정말 초보적이다. 성장을 멈춘 내 기도는 안달만 하고 깊어지지도 넓어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엉금엉금 기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조바심을 치는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누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될 만큼 이기적이고 창피할 정도로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빨리빨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세상에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 제일 잘 만드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이라는 생각까지 더하게 된다. 그렇게 기도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가끔 만나는 데레사 씨가 내게 해답을 명쾌하게 풀어 주었다.

안달복달을 하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렇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 젊은 날 것가락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박살이 나던 그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중이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은 끝났다, 기도 따위가 무슨 힘이 있는가, 그 말쑥에 발길질을 하던 그 찰나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가.

욕심은 소중한 기억을 잊게 한다. 하느님 앞에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서 무슨 마음 버리기를 하겠는가. 나의 기도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초보적 신앙이 뜨겁기는 하지 않은가. 나는 무지하지만 열렬한 신자로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긋는다.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이건 알아두세요.

성경이 전하는 난폭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명시대에 이렇게 야만적인 이야기를 읽으며 놀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통독 중인 어느 신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궁금하게 여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이 전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은 하느님 눈에 비춰진 가감 없는 인간의 행태임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인류는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문명시대에도 여전히 무식하고 잔인한 그들의 삶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내림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참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착취와 쟁취, 차별과 모멸이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악랄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은 현재, 실제 지금 내 안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닌 죄의 속성의 깊은 뿌리로 인해 우리는 생각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문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육성을 들려주는 그분의 고백이며 약속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모자란 인간을 “나의 종”, “내가 뽑은 자”,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을 일깨워 응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구원하실 계획을 지켜 이루신 그분 사랑의 자취를 느껴세요.

◆장재봉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시며
그것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 라인 홀트 니버 -